

윤복진 동요의 정전화 과정 연구

강영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현대시 전공

adorno69@hanmail.net

- I. 머리말
 - II. 윤복진 동요 수록지의 특징 및 분포
 - III. 윤복진 동요의 정전화 과정
 - IV. 해석 정전의 지평 확장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092).

I. 머리말

이 연구에서는 분단 이후 1988년까지 공백으로 자리잡았던 윤복진의 동요를 복원하고 재향유할 필요를 제기하는 맥락에서 각 시기별, 체제별 동요선집에 윤복진의 동요가 서로 다르게 수록되며 정전화 된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왕성하게 동요를 창작한 윤복진은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30여 년간 접할 수 없었던 반면 북한에서는 인민성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 받았다. 동일한 작가에 대한 남북한 동요계의 인식과 작품의 향유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 같은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유할 공통의 작품 정전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다.

1997년 원종찬은 “반세기만에 다시 햇빛을 보게 되는 이 동요집을 읽고서 우리 토박이말과 토박이 정서를 함께 맞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윤복진의 『꽃초롱 별초롱』에 수록된 44편 외에 작품성이 있는 작품 47편을 추가하여 총 91편의 동요를 수록한 『꽃초롱 별초롱』을 복간했다.¹ 이를 접한 북한의 김청일은 “아이들의 세대생활, 꽃과 나비, 봄비와 바람과 같은 자연을 노래한 작품들만 위주로 골라 묶”고 “계급성이 뚜렷하고 당대 사회의 전형적인 사회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는 작품들”²을 추가하지 않은

-
- 1 원종찬, 『꽃초롱 별초롱』(창비, 1997), 183쪽. 원종찬은 1949년판 『꽃초롱 별초롱』의 수록작 44편, 문학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새로 추가한 47편을 포함한 총 91편을 『꽃초롱 별초롱』(1997)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수백 편에 이르는 윤복진의 태작(怠作)들은” 배제하되, “계급주의 문학의 전성기에 나온 현실반영의 작품 가운데 비교적 작품성이 뛰어난 「스무하루밤」 「기차가 달려오네」 「쪽도리꽃」 「송아지 팔러 가는 집」 「나무 없다 부엉 양식 없다 부엉」 같은 작품과 “해방 이후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 서너 편도” 새로 추가했음을 밝혔다.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 연구: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7(2009), 167쪽.
 - 2 김청일, 「〈동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조선문학』(평

점을 아쉬워했다. 이에 원종찬은 작품의 완성도를 엄두에 두고 엄선한 것이며, 북한에서 고평한 <고향하늘>에 나타난 “향수의 감정은 어른의 것”³이라 수록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처럼 윤복진의 동요는 남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양상이 다르고, 작품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해석 방식도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모두 인정하 상태에서 작품을 이해할 공동의 지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내선은 윤복진의 노래 105곡을 수록한 『윤복진 동요곡집』 I·II권⁴을 발간하여 그동안 류덕제⁵, 손태룡⁶, 원종찬⁷ 등이 부분적으로 제공한 작품 목록을 집성했다. 이 악보집은 음악 전공자들이 사보 작업을 통해 음표와 가사의 교정 작업을 한 결정본으로, 남북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정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정전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⁸으며 한 집단을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 목록뿐만 아니라 작품의 해석 방식도 바뀐다. “정전의 해석이 개방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약간 불안정”⁹한 현상은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특정 작가의 작품이 시기와 체제를 달리하면서 여러 선집에 반복 수록됐다는 것은 편찬자의 선별 기준을 통과하고 편찬 시점의 사회정치적 변화, 교육제도, 독자층, 출판시장 등의 요구에 부합했음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은 분단 전 활동한 윤복진의 대표작을 해석하는 남북한의 해석 방식의 차이를 밝히는 데에 유효한 관점을 제시한다.

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7), 52쪽.

3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청동거울, 2012), 351~357쪽.

4 이내선(편), 『윤복진 동요곡집 I·II』(다운미디어, 2022).

5 류덕제,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청동거울, 2017).

6 손태룡, 『박태준 악곡 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 2013).

7 원종찬, 앞의 책.

8 강영미, 『정전 검열 기억』(지만지, 2019), 63쪽.

9 고규진, 『문학 정전』(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146쪽.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작품과 작품의 평가 방식이 다른 양상을 밝히는 방식으로 앞으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작품 및 해석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윤복진의 동요선집, 동요곡집 등을 새로 발간하면서 작품정전이 확대되는 현상에 초점을 두되 북한 동요선집에서 일부 행이나 절을 추가하여 작품의 의미에 변화를 준 경우에 특히 주목하여 해석 정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정 작가의 작품이 정전화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선집뿐만 아니라 교과서, 음악사 및 문학사에 등재된 양상까지 두루 살펴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동요선집, 동요곡집, 음반에 등재된 양상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텍스트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수록곡 전체의 목록이 인쇄된 상태로 존재하는 텍스트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Ⅱ. 윤복진 동요 수록지의 특징 및 분포

동요선집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분단 전후 남북한에서 발간한 동요선집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고 동요선집 목록도 부분적으로 정리된 상태이며, 목록에는 존재하나 실물은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여러 곳에 수소문하여 알음알음으로 자료를 찾아야 하는 것이 동요 연구의 현황이다. 이 논문을 집필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새로운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고, 입수하는 대로 목록에 반영했으나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 이는 새로운 동요선집을 발굴하여 입수하게 되면, 동요동시선집 목록이 추가되고 수록곡의 편수가 바뀔 수 있음을 즉, 동요동시 목록은 현재 ‘형성 과정 중’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러 연구를 축적하여 동요동시선집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소장처를 밝히고 원본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윤복진 동요 수록지의 특징

윤복진의 동요를 수록한 동요집, 동요선집, 작곡집, 음반 목록은 표1과 같다. 현재까지 확보한 바에 따르면 분단 전부터 현재까지 남북한에서 윤복진의 동요를 수록한 텍스트는 총 29건 33종이다.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윤복진의 동요가 수록된 양상을 살펴되, 판본을 달리하면서 수록 작품에 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종으로 처리했다. 대상 텍스트는 분단을 기준으로 분단 전, 분단 후 남한, 북한의 세 범주로 나눴다.

표1-분단 전후 동요 동시선집 및 동요곡집 목록

범주	작품집 제목
A. 분단 전 [14건 16종]	① 조선동요연구협회(편), 『조선동요선집: 1928년판』, 경성: 박문서관, 1929. [5편]
	② 흥년파, 『조선동요백곡집』, 경성: 연악회, 1931·1933. [10편]*
	③ 윤복진·박태준, 『양양범버궁』, 대구: 무영당서점, 1932. [14편]*
	④ 정순철, 『참새의 노래』, 경성: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1932. [5편]*
	⑤ 김기주(편), 『조선신동요선집: 1932·봄, 제1집』, 평양: 동광서점, 1932. [9편]
	⑥ 강신명,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초판본), 평양: 농민생활사, 1936. ¹⁰ [42편]*
	⑥-1 강신명,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재판본), 평양: 농민생활사, 1938. [41편]*
	⑥-2 강신명,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증보수정본), 미출간, 1940. [50편]*
	⑦ 임홍은, 『아기네동산』, 경성: 아이생활사, 1938. [4편]*
	⑧ 윤석중·방응모, 『조선아동문학집』, 경성: 조선일보출판사, 1938. [3편]
	⑨ 윤복진·박태준, 『물새발자국』, 경성: 교문사, 1939. [13편]*
	⑩ 아협동요연구소, 『조선동요백곡선』 상, 서울: 조선아동문화협회, 1945. [3편]*
	⑪ 박태준, 『박태준 동요작곡집』 서울: 음악사, 1949. [15편]*
	⑫ 윤복진, 『꽃초롱 별초롱』, 서울: 아동예술원, 1949. [47편] ¹¹
⑬ 박영중(편), 『현대동요선』, 서울: 한길사, 1949. [16편]	
⑭ 권태호, 『국민가요집』, 서울: 희망사출판부, 1949. [4편]*	

- 10 초판본에 42곡 수록, 재판본에 <물새 발자국> 추가하고, <돌맹이>와 <과광 조이 착착 뽕강 조이 착착>을 삭제하여 41곡 수록, 증보수정본에 <산 넘어온 송아지>, <자장가>, <애기별>, <벵아리>, <아기 신문>, <뽕글 뽕글 돌아라>, <뽕뽕>, <시계> 추가하여 50곡 수록, 3종의 판본에 윤복진의 동요 총 51곡 수록.
- 11 <줄음이 아장아장>, <아가 나뭇잎>, <봄아가씨> 3곡은 본문에는 없고 악보로 제시.

범주	작품집 제목
B. 분단 후 남한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태준, 『무궁화는 피고 피고』, 뉴욕: KOREAN ARTS AND LETTERS, 1952. [22편] ㉡ 흥난파, 『조선동요백곡집』, 서울: 대학당, 1991. [10편]* ㉢ 신나라레코드(편), 《유성기로 들던 여명의 한국 동요》, 서울: 킹레코드, 1993. [7편] ㉣ 윤복진·원종찬(편), 『꽃초롱 별초롱』, 서울: 창비, 1997. [91편] ㉤ 겨레아동문학연구회(편), 『겨레아동문학선집 9: 엄마야 누나야』, 서울: 보리, 1999. [10편] ㉥ 백창우, 『꽃밭: 좋은 우리 동시로 백창우가 만든 노래』, 서울: 보리, 2003. ㉦ 백창우, 《시를 노래하다 1》, 서울: 우리교육, 2005. [1편] ㉧ 김제곤·원종찬, 『밤 한 톨이 땀때굴: 근대 유년동시 선집』, 파주: 창비, 2017. [7편] ㉨ 이내선(편), 『윤복진 동요곡집 Ⅰ』, 대구: 다운미디어, 2022. [101편]¹²
C. 분단 후 북한 [6건 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 10: 아동문학집』,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3편] ㊱ 최창호, 『민족수난기의 가요들을 더듬어』(초판), 평양: 평양출판사, 1997. [1편] ㊱-1 최창호, 『민족수난기의 가요들을 더듬어』(중보판), 평양: 평양출판사, 2003. [6편] ㊲ 황룡옥, 『계몽기가요선곡집』(초판),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2편] ㊲-1 황룡옥, 『계몽기가요선곡집』(재판),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11편] ㊳ 류희정, 『현대조선문학선집 18: 1920년대 아동문학집(1)』, 평양: 문예출판사, 2000. [20편] ㊴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노래대전집』, 평양: 문예출판사 2004.¹³ [11편] ㊵ 류희정, 『현대조선문학선집 39: 1930년대 아동문학집(2)』, 평양: 문예출판사, 2005.¹⁴ [11편]

[] 안은 윤복진의 동요 수, < >은 음반, *는 악보집

목차의 「봄나비 한쌍」은 본문은 〈봄 아가씨〉로 돼 있는데 이는 원종찬 편 의 「과랑 신 빨강 신」과 동일한 내용이다.

- 12 국내 작곡자의 창작곡 88편, 외국 곡을 윤복진이 번역한 17편까지 포함하면 총 105곡을 수록했다. 이 중 박태준과 흥난파가 작곡한 〈고향하늘〉, 〈돌맹이〉, 〈바닷가에서〉, 강신명과 흥난파가 작곡한 〈참새〉처럼 윤복진의 동일한 동요를 다른 작곡가가 작곡한 경우 1작품으로 처리하면 총 101곡을 수록한 셈이다.
- 13 『조선노래대전집』의 〈광복전 가요〉에 식민지 시기 창작한 동요 11편 수록, 〈어린 이 노래〉에는 분단 후 창작한 동요 10편, 〈아동가요편〉에 4곡 수록.
- 14 『300곡집』을 출처로 밝힌 10편 중 8편이 강신명의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에 수록 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300곡집』은 강신명이 편찬한 책을 이르는 듯하다. 윤복진의 〈기차가 달려오네〉, 〈스무하루밤〉, 〈기러기〉, 〈슬픈밤〉, 윤석중의 〈저 바다〉 강승한의 〈봄바다〉, 박을송의 〈어머니 가슴〉, 강소천의 〈봉사꽃〉이 수록됐고, 강소천의 〈금붕어〉와 윤극영의 〈배짚이〉는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에 수록되지 않았다.

분단 전 윤복진의 동요를 수록한 텍스트는 14건 16종이고, 분단 후 남한에서 윤복진의 동요를 수록한 매체는 9건이며, 분단 후 윤복진의 동요를 수록한 북한 매체는 6건 8종이다.

A의 ①은 1927년 “朝鮮 少年運動 文化戰線의 一部”로서 “童謠의 研究와 그 實現을 期하고 그 普及을”¹⁵ 목표로 창립한 조선동요연구협회가 92명이 창작한 동요 180편을 수록한 동요선집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5편을 수록했고 ②는 흥난파가 “첫 솜씨로 만든 이 적은 노래책을 조선 어린이들”¹⁶에게 주기 위해 55명의 동요 100편을 작곡한 동요곡집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10곡을 수록했다. ③은 박태준이 윤복진의 동요 14곡을 작곡하여 수록한 동요곡집이고 ④는 정순철이 국내외 동요 26편을 작곡하여 수록한 동요곡집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5곡을 수록했다. ⑤는 김기주가 123명의 “文士 諸氏의 가장 새로운 作品을 募集하여” 편찬한 동요집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9편을 수록했다. ⑥은 평양에서 목회 활동을 한 강신명이 주일학교용 교본으로 편찬한 초판본으로 338곡 중 윤복진의 노래 42곡을 수록했고, 김열에 걸린 곡을 삭제하여 발간한 재판본 ⑥-1에는 윤복진의 동요 41곡을 수록했고 동경에서 편찬한 ⑥-2에는 윤복진의 동요를 추가하여 50곡을 수록했다. ⑦은 임흥은이 5편의 동화와 15명의 동요에 그림을 그려 넣은 그림 이야기 노래책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4편을 수록했고 ⑧은 조선일보사출판부에서 “현대 조선 아동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구십여 편을 모집”한 “아동문학의 집대성”으로 동요 57편, 동화 20편, 동극 3편, 소년소설 6편을 수록했는데 이 중 윤복진의 동요는 3편이다. ⑨는 박태준이 윤복진의 작품 13편을 작곡하여 수록한 동요곡집이고 ⑩은 아협동요연구소에서 발간한 동요곡집으로 상권만 발행했는데 수록곡 50곡 중 6곡이 윤복진의 동요다. ⑪은

15 「朝鮮童謠研究協會 創立」, 《동아일보》, 1927년 9월 3일자.

16 흥난파, 『조선동요백곡집』 상(연악회, 1929).

박태준이 작곡한 29곡을 수록한 동요작곡집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15곡을 수록했다. ⑫는 분단 전 윤복진이 발간한 유일한 동요집으로 동요 44편과 동요곡 10곡을 수록했는데, 중복곡을 제외하면 수록 동요는 총 47편이다.¹⁷ ⑬은 박영중이 본인에게 “感動을 준 作品을 뽑”은 71편을 편찬한 것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16편을 수록했다. ⑭는 권태호가 국민가요를 편찬한 것으로 윤복진의 노래는 4곡을 수록했다. 이 4곡은 동요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방 전후 윤복진이 창작한 작품의 특징 및 월북 이후 창작한 작품과 비교할 필요가 있기에 목록에 추가했다. 분단 전 발간된 14건의 텍스트 중 11건이 악보까지 제공한 동요곡집이라는 것은 윤복진의 동요가 악곡을 붙인 동요곡으로 작곡되어 당대에 널리 불렸음을 뜻한다. 이처럼 분단 전 윤복진의 작품은 동요와 동요곡의 형태로 동요선집, 개인 작곡집, 그림과 동화와 이야기 등을 한데 모은 작품집, 유성기 음반 등에 다양하게 수록됐다. 이는 분단 전 윤복진의 동요가 묵독과 낭송과 노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됐음을 뜻한다.

B의 ①는 박태준이 뉴욕에서 발간한 작곡집으로 36곡 중 윤복진의 동요는 22곡을 수록했다. 뉴욕에서 출간했기에 출판이 금지된 월북작가 윤복진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었다. ⑥는 1931년과 1933년에 발간한 홍난파의 『조선 동요백곡집』 상하권을 영인하여 발간한 것으로 국내에서 윤복진의 동요 10편을 복간하는 계기가 됐다. ⑦는 분단 전 유성기로 들던 동요를 1993년에 복각한 음반으로 월북작가 해금 조치 후 윤복진의 동요곡 7곡을 식민지시기의 음색으로 접할 수 있게 했다. ⑧는 윤복진이 1949년에 발간한 『꽃초롱 별초롱』에 수록한 44편에 원종찬이 추가한 47편 포함, 총 91편을 수록한 동요선집이다. ⑨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발표한 동요 중 작품성이

17 <줄음이 아장아장>, <아가 나뭇잎>, <봄아가씨>의 세 곡은 악보와 가사의 형태로 제시됐다. 목차에는 <봄나비 한쌍>으로 제시됐으나 본문에는 <봄아가씨>가 수록됐다.

있는 동요를 창작한 동요 작가 40명의 동요 96편을 수록한 선집으로 분단 후 남한에서 동요 작가의 정전 확대 현상을 보인 대표적인 자료다. 윤복진의 동요는 10편을 수록했다. ㉑는 백창우가 “좋은 우리 동시로” 만든 노래 18곡을 수록한 노래책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1편을 수록했고 ㉒는 “일제시대 시인” 및 “월북 시인” 24명의 시로 만든 동요 24편을 수록한 음반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1편을 수록했다. ㉓는 김제곤과 원종찬이 대표적인 동요 작가인 방정환, 윤복진, 윤석중, 정지용을 포함한 총 11명의 작품 정전에 해당하는 동요를 수록한 것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㉔에 수록한 작품 중 일부를 재수록했다. ㉕는 음악 전공자인 이내선이 여러 작곡가의 작곡집 별로, 동요곡선집별로 흩어져 있던 악보를 수집·사보하고, 가사를 현대어로 표기하여 윤복진의 노래 105곡을 수록한 동요작곡집으로, 현재까지 남북을 통틀어 윤복진의 동요곡을 가장 많이 수록한 결정본이라 할 수 있다. 윤복진의 창작 동요 84편으로 만든 동요곡 88곡¹⁸, 번역 가사로 만든 노래 17곡을 수록했는데, 이 중에는 그동안 동요선집에 수록되지 않았던 노래 2곡¹⁹이 포함돼 있다.

㉖의 ㉑은 혁명아동가요와 함께 18명의 동요 작가의 작품을 수록했는데 윤복진의 동요는 3편을 수록했다. ㉗의 「악보를 통해 보는 민족수난기의 예술가요와 동요」 장에서, 민족수난기에 창작한 대표적인 예술가요 25곡 중 동요 15곡은 동심적인 울타리를 벗어나 성인들도 함께 불렀던 애향가라고 평가했는데 동요 15곡 중 1곡이 윤복진의 「고향하늘」이다. ㉗의 재판본인 ㉘-1은 초판본에 수록한 동요 15곡 중 7곡만 재판본에 수록하고 8곡은

18 박태준과 홍난파가 작곡한 〈고향하늘〉, 〈돌맹이〉, 〈바닷가에서〉, 강신명과 홍난파가 작곡한 〈참새〉처럼 동일한 가사를 다른 작곡가가 작곡한 경우 1작품으로 처리하면, 윤복진 동요 84편으로 만든 악보를 기준으로 하면 총 88곡의 동요곡을 수록한 악보집이다.

19 〈녹슨 가락지〉, 〈우리 말 우리 글〉.

제외한 후 26곡을 추가했는데 윤복진의 동요는 6곡을 수록했다. 동요다운 노래로 엄선하는 과정에서 윤복진의 동요 5곡을 추가했다. ㉔은 계몽가요, 동요, 예술가요를 수록했는데 동요 편에 수록한 52편 중 윤복진의 동요는 12곡이다. ㉕의 재판본인 ㉕-1은 계몽가요, 동요, 예술가요, 신민요, 대중가요로 세분화하여 노래를 재배치하는 정교화작업을 하면서 초판본의 동요 편에 수록한 윤복진의 <방아짙는 색시의 노래>를 신민요 편으로 옮겼기에, 재판본의 동요 편에 수록된 윤복진의 동요는 11편으로 줄어들었다. ㉖은 1920년대 아동문학작가 35명의 동요를 모은 선집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20편을 수록했다. ㉗은 북한의 가요를 모은 『조선노래대전집』으로 가요, 가극노래, 영화노래, 아동가요, 민요 편으로 나눠 수록하되 분단 전 창작한 윤복진의 동요 11곡은 광복 전 가요 편에 수록했다. 아동가요 편에는 분단 후 북한에서 창작한 동요를 수록했다. ㉘은 1930년대 아동문학 작품 123명의 동요를 모은 선집으로 윤복진의 동요는 11곡을 수록했다. 북한에서는 재판을 발간하며 초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작가와 작품을 추가 수록하며 동요 작가와 작품 목록의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출간된 동요선집, 노래전집에서는 윤복진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으며 수록 작품의 소개 및 주제도 남한에 비해 폭넓고 다양한 편이다.

지금까지 살핀바, 윤복진의 동요를 수록한 텍스트는 분단 전이 가장 많은데 이는 윤복진의 동요와 동요곡이 1920~1930년대에 독서물과 노래와 음반의 형태로 대중적으로 널리 향유됐음을 뜻한다. 반면 남한에서 윤복진의 동요를 한동안 접할 수 없었던 것은 남한 정부가 1949년부터 “국가이념과 민족정신에 위반되는 저작자의 저작물, 괴행행물의 간행·발매·연출·수출입 등을 일절 금지하기로 방침을 결정”²⁰하고 1957년부터 납월북 작가의

20 「문교부, 국가이념에 배치되는 중등교과서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 《조선일보》, 1949년 10월 1일자.

작품에 대한 출판 판매 금지²¹를 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박태준이 윤복진의 동요곡을 수록한 『무궁화는 피고 피고』(1952)를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가 아닌 뉴욕이었기에 가능한 예외적 현상이었다. 박태준, 홍난파가 작곡한 윤복진의 동요곡은 이 기간에 윤석중, 박목월, 이태선이 가사를 새로 쓰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바꿔서 동요선집, 교과서 등에 수록했기에 새로 편찬한 동요선집에서 윤복진의 동요를 찾기 어려웠다. 남한에서 윤복진의 동요는 분단 전 발간한 텍스트를 복간하는 형태로 1990년대에 발간한 작곡집, 시집, 음반의 형태로 접할 수 있으며, 그나마 특정 경향의 작품만 반복 수록되고 있기에 윤복진 동요의 다양한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윤복진을 수록한 동요선집이 많은 이유는 윤복진이 북한에서 체제의 인정을 받으며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1952년 북한에서 새 교과서를 편찬할 때 윤복진은 교과서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민학교 1학년용 음악교재의 첫머리에 들어갈 동요 「새 조선의 꽃봉오리」, 소년 애국가 「아름다운 우리나라」(1951~1954)를 창작했고,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히 현역작가로 활동하며 시집 『아름다운 만경대』, 『시냇물』 등을 발간했다. 국가훈장 1급, 김일성상 등을 받고 1991년 7월 16일 사망할 때에는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로 북한 체제에서 인정을 받았다.²²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북한의 동요선집에 윤복진의 작품이 줄곧 수록될 수 있었던 이유다.

2. 윤복진 작품의 수록 양상

위의 선집에 수록된 윤복진의 작품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중복된 작품을

21 「월북작가 작품 출판판매금지 문교부서 지시」, 《동아일보》, 1957년 3월 3일자.

22 김청일, 앞의 글, 27~34쪽.

제외하면 총 184편이다. 이는 윤복진이 분단 전 창작했다고 스스로 밝힌 1천여 편의 작품 중 18%에 해당한다. 개인 작품집이 아닌 각종 동요 선집에 수록된 작품²³임에도 그 수가 서정시에 비할 때 상당히 많은 편이다. 동요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짧은 길이로 창작하기에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고, 창작한 작품은 1920~1930년대의 어린이 운동의 흐름을 타고 동요집, 작곡집, 라디오, 음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향유된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윤복진이 분단 전 창작한 작품 184편이 분단 전후 시선집 29건 33종에 수록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2-동요선집 수록 작품 목록

선집 번호	1	2	3	4	5	6	6-1	6-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시	남	북	합			
공명 작품 수	5	10	14	5	9	42	41	50	4	3	13	3	15	4	7	16	4	23	10	7	9	7	1	1	7	10	3	1	6	-1	-1	12	11	20	11	11						
고향하늘	7	5	6	18	
동네의원	5	6	5	16
기러기	7	2	5	14
바닷가에서	6	4	4	14
풍경	7	3	1	11
누나야 보슬보슬	5	2	3	10
봄비 내린다	5	2	3	10
스무하루밤	3	3	4	10	
말 탄 놈도 깃떡	4	1	3	8
소 탄 놈도 깃떡	4	1	3	8	
등대	3	1	4	8	
하모니카	1	3	4	8	
맷밭 맷싸리	4	2	1	7	
우리집 군악대	4	2	1	7	
슬픈 밤	4	1	1	6	
새 보는 아가의 노래	3	1	2	6	
기차가 달려오네	3	2	1	6		
무명초	2	3	1	6		

23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윤복진 작품의 전체 현황을 살펴기 위해 수록작 전체를 표에 제시했다. 수록작의 장르적 귀속에 대해서는 북한의 『계몽기 가요선곡집』의 초판본과 재판본의 수록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집 번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⑥-1	⑥-2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	㉢	㉣	㉤	㉥	㉦	㉧	㉨	㉩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시	남	북	합		
곡명 작품 수	5	10	14	5	9	42	41	50	4	3	13	3	15	47	16	4	23	10	7	9	1	7	10	3	1	6	12	11	20	11	11										
숨바꼭질																																				•	2	2	1	5	
꽃초롱 별초롱																																					•	2	1	4	
잠방울 꿈방울																																				•	2	1	4		
고향집1(정순철)																																					•	1	1	3	
이슬																																					•	1	1	3	
참새																																						•	6	3	9
돌아오는 배																																						•	6	2	8
겨울밤																																						•	5	3	8
송아지																																						•	5	3	8
양양 범버궁																																						•	5	3	8
중중 때때중																																						•	3	4	7
갈때																																						•	5	2	7
가을 바람이지																																						•	4	3	7
눈 오신 아침																																						•	4	3	7
물새 발자국																																						•	4	3	7
씨 하나 물고																																						•	4	3	7
돌맹이																																						•	4	2	6
불비																																						•	4	2	6
송아지 팔러 가는 집																																						•	4	2	6
옛이야기 열두발																																						•	4	2	6
저녁중																																						•	4	2	6
뽕강 조이 착착 파랑 조이 착착																																						•	4	1	5
영감 영감 야보소 예라 이눔 침줄까																																						•	3	2	5
오줌싸기 통싸기																																					•	3	2	5	
우리 아기 빨래																																						•	3	2	5
잠자는 미륵님																																						•	3	2	5
뱅글뱅글 돌아라																																						•	2	3	5
엄마 한번 먹고																																						•	2	3	5
은행나무 아래서																																					•	2	3	5	
푸른 언덕																																						•	2	3	5
가을날의 시내																																						•	3	1	4
가을밤																																						•	3	1	4
고향집2 (초천신 곡)																																						•	3	1	4
발자국																																						•	3	1	4
새벽중																																						•	3	1	4
어머니 그리워																																						•	3	1	4
왜봇 한 자루																																						•	3	1	4

선집 번호	1	2	3	4	5	6	6	7	8	9	10	11	12	13	14	a	b	c	d	e	f	g	h	i	j	k	l	l	c	c	c	e	e	e							
	5	10	14	5	9	42	41	50	4	3	13	3	15	47	16	4	23	10	7	9	1	1	7	10	3	1	6	12	11	20	11	11	11	11	11						
곡명 작품 수																																					시	남	부	합	
종달새 종중종 우지지더니						•	•	•																												3	1	4			
탄일종						•	•	•																													3	1	4		
할머니 노래						•	•	•																													3	1	4		
도는 것	•																																					2	2	4	
초가집																																							2	2	4
고욤																																							1	3	4
까까집 가는 길																																							1	3	4
구멍가게																																							1	3	4
꼬꼬 I																																							2	1	3
낚은 삿갓(=삿갓)																																							2	1	3
다람쥐 다람다람																																							2	1	3
병아리																																							2	1	3
산길																																							2	1	3
아기 참새																																							2	1	3
애기별																																							2	1	3
이슬 방울																																							2	1	3
자장가																																							2	1	3
그이 생각																																							1	2	3
금박 땀기																																							1	2	3
깜빡깜빡																																							1	2	3
꽃배개꿈배개																																							1	2	3
당나귀																																							1	2	3
마님과 머슴																																							1	2	3
봄아가씨(=파랑 신 빨강신)																																							1	2	3
소꿉놀이																																							1	2	3
아 가을인가																																							1	2	3
아아아 할거야																																							1	2	3
진달래1																																							1	2	3
하나, 둘, 셋																																							1	2	3
하늘																																							1	2	3
갓모를 잊고																																							1	1	2
그리운 고향																																							1	1	2
기억 나온 배우세																																							1	1	2
꼬꼬 II																																							1	1	2
피꼬리																																							1	1	2
나는야 알고말고																																							1	1	2
낙엽																																							1	1	2
농부의 노래																																							1	1	2

선집 번호	1	2	3	4	5	6	6-1	6-2	7	8	9	10	10-1	10-2	13	14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곡명	작품 수																																			식	남	북
누에를 치세	5																																				1	1	2
달랑 주머니																																					1	1	2
망아지																																					1	1	2
아가 나뭇잎																																					1	1	2
아가야 다가가																																					1	1	2
아리랑																																					1	1	2
애기 신문																																					1	1	2
악물이 풍풍풍																																					1	1	2
오유유																																					1	1	2
요호																																					1	1	2
우리 대장 들어온다																																					1	1	2
일터로 일터로																																					1	1	2
자야 자야 금자야																																					1	1	2
자장자장 자아장																																					1	1	2
제비는 멧쟁이																																					1	1	2
즐음이 아장아장																																					1	1	2
총각 마차군																																					1	1	2
탁씨는 괴보																																					1	1	2
해 지려는 저녁 때																																					1	1	2
종달새																																				3	4	7	
방아 찻는 색시의 노래																																					1	1	2
전화(=우리가 만들 전화통은)																																					1	1	2
꽃대추																																					1	1	2
귀염 뽕뽕																																					1	1	1
산 넘어온 송아지																																				1		1	
산골 시내																																					1		1
시계																																					1		1
어린 짐자리																																					1		1
어이 어이																																					1		1
옥수수가 운다																																					1		1
우리야 마실																																					1		1
하늘 껴질 흥																																					1		1
무궁화 피고피고																																				3		3	
노골노골 노고지리																																				2		2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의 선정원리를 살필 수 있다. ④분단 후 남북한선집에 새로 수록된 동요 3편 역시 분단 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시사하는 작품군이다. 분단 전후 남북한선집에 모두 수록된 동요는 작품정전으로서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기에 이들 작품을 통해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동요의 접점을 확인하고 해석의 지평을 확대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분단 전후 남북이 공유하지 않는 작품군. ⑤분단 전 선집에만 수록된 동요 10편, ⑥남한 선집에만 새로 추가된 동요 46편, ⑦북한 선집에만 추가된 동요 14편은 서로 다른 시기와 체제에 수용되지 않은 배제원리를 살필 수 있는 작품군이다. 남한이나 북한 선집에만 수록된 동요는 다른 체제에서 인정하지 않는 작품군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힐 가능성을 품고 있다. 배제원리를 보이는 작품군과 선정원리를 보이는 작품군을 비교하여 배제원리와 선정원리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Ⅲ. 윤복진 동요의 정전화 과정

윤복진이 창작한 동요는 분단 전에도 대부분 동요곡으로 만들어져 불렀다. 시기별, 체제별로 동요의 표기법과 행과 연의 배치법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소리 내 읊조리고 노래로 부를 때에는 우리말 구어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글에서 인용하는 작품은 가장 최근에 악보와 가사를 검토하여 발간한 『윤복진 동요곡집』 I·II의 표기법을 따르고, 노래로 만들어지지 않은 동요를 인용할 때는 윤복진의 개인 동요집 『꽃초롱 별초롱』(1949)의 행 배치와 표기법을 따르되, 이 두 곳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을 인용할 때는 각주로 그 출처를 밝힌다.

1. 선정원리에 드러난 작품 정전의 특징

1) 분단 전 동요선집에 수록된 곡 중 남북한 선집에 모두 수록된 동요 21편, 2) 분단 전과 남한 동요선집에도 수록된 동요 89편, 3) 분단 전과 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동요 1편은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의 선정원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4) 분단 이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새로 수록된 동요 3편은 분단 이후 새로운 평가를 받으며 수록된 작품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남북한 동요 정전의 선정원리: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동요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모두 수록된 21편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3-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 수록곡

합	식	남	북	작품명
18	7	5	6	고향하늘
16	5	6	5	동네의원
14	7	2	5	기러기
14	6	4	4	바닷가에서
11	7	3	1	풍경
10	5	2	3	누나야 보슬보슬 봄비 내린다
10	3	3	4	스무하루밤
8	4	1	3	말 탄 농도 깃덕 소 탄 농도 깃덕
8	3	1	4	등대
8	1	3	4	하모니카
7	4	2	1	땀땀 땀사리, 우리집 군악대
6	4	1	1	슬픈 밤
6	3	1	2	새 보는 아가의 노래
6	3	2	1	기차가 달려오네
6	2	3	1	무명초
5	2	2	1	숨바꼭질
4	2	1	1	꽃초롱 별초롱, 잠방울 꿈방울
3	1	1	1	고향집1(정순철 작곡), 이슬

분단 전 동요선집에는 「고향하늘」, 「기러기」, 「풍경」, 「바닷가에서」 순으로 많이 수록됐는데 이는 남북한의 최다 수록곡과 거의 일치한다. 분단 후에는 남북한 시선집에서 「동네의원」, 「스무하루밤」, 「하모니카」 순으로 많이 수록되고 있다. 각 범주의 최다 수록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향하늘」은 시기와 체제를 떠나 식민지시기부터 분단 이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가장 많이 수록된 동요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널리 향유됐다.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 제면, 저 산 넘어 하늘만 바라”본다는 내용의 이 동요는 분단 전에 홍난파가 3/4 박자로, 박태준은 6/8 박자의 동요곡으로 작곡했는데 북한에서는 박태준이 작곡한 곡에 다른 이들이 2절과 3절의 가사를 새로 붙여 불렀다.²⁴ 인민들이 추가하여 부른 2~3절은 떠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내용으로 별다른 사성성이나 경향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유년에 대한 그리움이 고향에 대한 상실감으로 확대되어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한 듯하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인민성과 향토성의 가치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울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길을 잃은 기러기 날아갑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로 엄마엄마 찾으며 흘러갑니다
오동잎이 우수수 지는 달밤에 아들 찾는 기러기 울며 갑니다
엄마 엄마 울고 간 잠든 하늘로 기럭기럭 부르며 찾아갑니다.

박태준 작곡, 「기러기」

「기럭이」는 북한에서 「가을밤」²⁵이라는 제목으로도 표기된 바 있는데,

24 “윤복진은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새로 나온 우리 나라 노래도 배워 주었는데 동요 〈고향하늘〉은 이미 그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었다.” 김청일, 앞의 글, 57~58쪽.

기러기 울음소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자 관계를 연상하며 이별의 슬픔과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풍경」은 바람에 흔들린 풍경 소리에 반응하는 아기의 모습을 의성어 “짱그랑, 짱그랑”으로 표현하고, 「바닷가에서」는 바닷가에 널린 돌맹이 중 하나를 고르느라 하루해를 다 보내는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풍경 소리와 돌맹이 모양에 반응하는 어린이의 천진스런 마음을 표현한 동요가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많이 수록됐다. 윤복진은 「고향하늘」과 「풍경」은 개인 동요집 『꽃초롱 별초롱』(1949)에 수록했으나 「기러기」와 「바닷가에서」는 수록하지 않았다. 대표작을 엄선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주제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들은 윤복진의 동요선집에서는 배제됐으나 소재의 참신성, 주제의 보편성 등의 측면에서 대중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분단 전후 남한 동요선집에 최다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분단 후 남북한 동요선집에는 「동네의원」, 「스무하루밤」, 「하모니카」가 많이 수록됐다. 「동네의원」은 차돌이가 흙으로 가루약을 짓고 솔잎으로 침을 놓는 의원놀이를 하는 내용으로, 북한에서는 원작에 없던 “약값 한푼 안 받는 의원”을 추가한 결구가 시대 정신을 반영했다고 고평한다. 어린이의 놀이 과정에도 무상 의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고향하늘」에서처럼 일부 행이나 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원작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모니카」는 오빠가 숨겨둔 하모니카를 동생이 볼 수 있게 엄마가 찾아주는 내용이다. 어린이의 독점욕을 인정하면서 동생도 잠시 하모니카를 볼 수 있게 시간을 안배하는 엄마의 지혜가 돋보인다. 오빠의 하모니카를 몰래 부는 즐거움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내가 분 줄을 도미썰도 도썰미도 누가 아나요”에 잘 드러나고 있다. 놀며 치유하고,

25 류희정의 『현대조선문학선집 39: 1930년대 아동문학집(2)』(평양: 문예출판사, 2005)에는 동일한 가사가 「기러기」 제목으로 수록됐다.

독점하며 나누는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활 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이 두 곡은 분단 전에도 노래로 널리 불렸다.

스므 하로 이 밤은 월급 타는 밤 실 뽑는 어머니가 월급 타는 밤
자장자장 아가도 잠들지 않고 논두렁 공장 길에 밤은 깊은데
이 달 품짝 모자라 눈물 지우나 저 달이 넘어가도 아니 오실가.

「스무하루밤」 2절

「스무하루 밤」에는 공장에 일하러 간 엄마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았다. 아버지가 부재한 집안, 고된 노동으로 가게를 책임지는 어머니, 어머니의 고됨을 염려하는 어린이의 안타까운 감정을 통해 삶의 세목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 박태준이 작곡한 이 동요곡은 분단 전에는 강신명의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의 세 종의 판본에만 수록되고 박태준의 개인 작곡집이나 여타의 동요선집에도 수록되지 않았으나 분단 후에는 1990년대 이후 발간한 남북한 동요선집에 각각 3, 4회씩 수록됐다. 어머니의 늦은 귀가를 염려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여성이 고되게 노동하는 식민지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서는 함께 나누며 치유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되 그 고됨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동요가 수록됐다.

이 외에 북한 선집에 많이 수록된 「등대」는 외롭게 홀로 빛나며 뱃길을 알려주는 등대의 가치를 노래하고, 「말 탄 놈도 꺾떡 소 탄 놈도 꺾떡」은 말과 소에게 고된 일을 시킨 후 그 위에 올라타기까지 하는 사람의 야박한 모습을 의성어 ‘꺾떡 꺾떡’으로 풍자했다. 「누나야 보슬 보슬 봄비 내린다」는 봄비가 내리니 “해바라기 문들네 봉숭아씨를 참새 눈을 감겨두고 몰래 심”지며, 생명을 틔우는 과정에 나와 누나와 참새가 다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전하고, 「새 보는 아가의 노래」는 “스무 섬 알나락 거두든 눈에는 쪽택이 나락 녀섬도 못” 날 정도로 흉년이 들었으니 올해는 나락을 까먹지 말라고 참새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 동요는 일부 단어가 교체되고 3절이 추가된 형태로 북한에서 향유되고 있다. 북한 선집에 더 많이 수록된 동요는 동물에 대한 사랑, 흉년 든 해의 곡식을 염려하는 내용을 대화체의 구어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한 공통점을 보인다.

2) 분단 전과 남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동요

분단 전부터 남한 동요선집에만 수록된 89편의 동요를 통해 남한의 선정원리와 북한의 배제원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4-분단 전후 남한 동요선집 수록 작품

합	식	남	북	작품명
9	6	3		참새
8	6	2		돌아오는 배
8	5	3		겨울밤, 송아지, 양양 범버궁
7	3	4		중중 때때중
7	5	2		갈때
7	4	3		가을 바람이지, 눈 오신 아침, 물새 발자국, 씨 하나 못고
6	4	2		돌맹이, 봄비, 송아지 팔러 가는 길, 옛이야기 열두 발, 저녁중
5	4	1		빨강 조이 착착 파랑 조이 착착
5	3	2		영감영감 야보소, 오줌싸기 똥싸기, 우리 아기 빨래, 잠자는 미륵님
5	2	3		뱅글 뱅글 돌아라, 엄마 한번 먹고, 은행나무 아래서, 푸른 언덕
4	3	1		가을날의 시내, 가을밤, 고향집2(초천신 작곡), 발자국, 새벽중, 어머니 그리워, 왜뭇 한 자루, 종달새 종종중 우지지더니, 탄일중, 할머니 노래
4	2	2		도는 것, 초가집
4	1	3		고욤, 구멍가게, 까까집 가는 길
3	2	1		꼬꼬1, 낚은 삿갓, 다람쥐 다람다람, 병아리, 산길, 아기 참새, 애기별, 이슬 방울, 자장가
3	1	2		그이 생각, 금박뎅기, 깜빡깜빡, 꽃베개 꿈베개, 당나귀, 마님과 머슴, 봄아가씨(=파랑신 빨강신), 소꿉놀이, 아 가을인가, 아야야 할거야, 진달래1, 하나둘셋, 하늘
2	1	1		갓모를 잊고, 그리운 고향, 기억니은 배우세, 꼬꼬2, 피꼬리, 나는야 알고 말고, 낙엽, 농부의 노래, 누에를 치세, 달랑 주머니, 망아지, 아가 나뭇잎, 아가야 다가야, 아리랑, 애기 신문, 약물이 뽕뽕, 오요요, 요호, 우리 대장 들어온다, 일터로 일터로, 자야자야 금자야, 자장자장 자야장, 총각 마차군, 탁씨는 피보, 해 지려는 저녁 때

수록 순으로 보면 분단 전에는 「참새」, 「돌아오는 배」, 「겨울밤」, 「송아지」, 「양양범버궁」, 「갈대」 순으로, 분단 후에는 「중중 때때중」, 「가을 바람이지」, 「눈 오신 아침」, 「물새 발자국」 순으로 많이 수록됐다. 분단 전 최다 수록곡을 살핀 후 중복되지 않은 남한 최다 수록곡을 살피면 표4와 같다.

분단 전 최다 수록곡인 「참새」는 집안에 감시자가 없을 때 소반과 쌀독에 있는 쌀알을 먹으려는 참새들의 대화를 표현했고, 「돌아오는 배」에서는 “해 저무는 봄바다에 돛단배 하나”를 타고 “물 건너간 우리 오빠”가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으며, 「겨울밤」에서는 겨울밤 화롯가에 앉아 “버선 짚은 엄마한테 얘기”를 듣는 풍경을 묘사했다. 「송아지」에서는 종달새의 노래소리, 목동의 피리 소리를 배경으로 외양간의 송아지가 엄마 소를 생각하며 우는 모습을 그렸다. 「양양범버궁」에서는 “양양” 소리를 내며 콩을 먹지 못하는 나와 달리 “범버궁” 소리를 내며 콩을 먹는 오빠를 “꿀돼지”라고 놀리는 내용이다. 「갈대」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의 움직임을 “오라고 손짓” 하는 것으로 의인화한 내용이다.

「중중 때때중」에서는 어린이와 나이 어린 “때때중” 간의 익살스런 대화를 생동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아이) 중중 때때중 바람 메고 어디 갔다 중중 때때중 목탁 치고 어대 갔다

(중) 등등 등 넘어 골목골목 동냥 갖지 강강 강 건너 이 집 저 집 동냥 갖지

(아이) 열두 대문 김정승네 무얼무얼 동냥 주데 초가삼간 박침지네 무얼무얼 동냥 주데

(중) 열두 대문 큰 개와집 밧떡찰떡 쌀 한 개우 초가삼간 감나무집 대추 열둘 알밤 스물

(아이) 중중 때때중 밧떡찰떡 날 줌 다오 중중 때때중 밤 대추 날 줌 다오

(중) 예라 이놈 침 맞을나 무슨 말을 그리하나 관شم보살 부처님은 무얼로서

같은 또래임에도 복장과 행동이 다른 “때때중”에 대한 호기심을 지닌 어린이가 “때때중”에게 “어디 갔다”, “동냥 주데”라고 물으면, 때때중은 동냥 가서 쌀과 대추와 알밤을 받아 오는 길이라고 대답한다. 대답을 들은 어린이가 “중중 때때중 밤 대추 날 좀 다오”라고 물으면 때때중은 “에라 이놈 침 마졸나”라며 짐짓 과장되게 대답한다. 승려와 일반인이라는 신분 차를 넘어 또래의 어린이가 허물없이 대화하는 과정이 해학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기네동산』을 편찬한 임홍은이 “이 노래를 불러주면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²⁷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 이 노래는 당대에 널리 유행했다. 「가을 바람이지」에서는 가을 바람이 호박잎, 봉선화 꽃씨, 옥수수 잎, 꾀꼬리를 흔드는 모습으로 수확을 앞둔 가을 풍경을 묘사하고 「눈 오신 아침」에서는 눈 쌓인 아침 참새들이 춤다며 햇볕을 쬐는 장면을 묘사했다. 「물새 발자국」에서는 모래밭에 찍힌 물새 발자국이 실바람과 바닷물에 씻겨 사라지는 모습을 “고 발자국 예쁘다 어루만”진다고 의인화했다. 북한의 한 평론에서는²⁸ 윤복진이 원산의 명사십리에서 이정구를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썼다는 창작 배경까지 언급하였으나 동요선집에는 이 동요를 수록하지 않았다.

인간과 함께하는 참새, 송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채로운 가족 관계를 표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계절의 변화를 드러낸 「가을날의 시내」, 「낙엽」,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아가 나뭇잎」, 「할머니 노래」,

26 가사에 “때때중”으로 표기된 “때때중”은 나이가 어린 중을 뜻한다. 강신명, 『아동가요곡선 삼백곡』(평양: 농민생활사, 1936).

27 전영택, 「序」, 林鴻恩(편), 『아기네동산』(경성: 아이생활社, 1938).

28 김청일, 앞의 글, 60~61쪽.

남매간의 우애를 드러낸 「밝강 조이 착착 파랑 조이 착착」, 「왜봇 한자루」, 식물, 동물, 사물의 단편적인 특징을 드러낸 「고욤」, 「병아리」, 「탁씨는 꺾보」 등이 분단 전부터 남한 동요선집에 수록됐다.

최근 발간한 『윤복진 동요곡집』 I·II권에 ‘조선군사, 일본군사, 조선국기, 일본 국기’ 등으로 식민 상황을 노출한 「우리 대장 들어온다」, 해방기 국민가요인 「기억 나은 배우세」, 「농부의 노래」, 「누에를 치세」, 「일터로 일터로」, 상제도 없이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묘사한 「해 지려는 저녁 때」 등을 새로 수록하면서 윤복진 노래의 복원 및 확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윤복진의 동요 전체를 소재 및 주제를 기준으로 동요, 신민요, 국민가요 등의 범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3) 분단 전과 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동요 1편

「종달새」는 분단 전에는 강신명의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에만 수록됐다 가 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동요다.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²⁹⁾의 출전에 “1936년 『300곡집』”이라고 밝혀 놓은 것은 강신명의 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평양에서 발간한 『아동가요곡선 삼백곡』이 북한 동요선집의 주요 출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분단 전후 북한 동요선집 수록 작품

합	식	남	북	작품명
7	3		4	종달새

보리밭에 종달새 봄이 왔다고 은방울 흔들면서 노래하기를 누구든지 같이
와 놀고 가라고

29 류희정(편), 앞의 책.

처마끝 조롱 속의 옛집 그린 새 보리밭을 보면서 슬피 울기를 갈래야 갈 수 없는 맨몸이라고

「종달새」

「종달새」의 1절에서는 보리밭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종달새를, 2절에서는 조롱 속에 갇혀 날지 못하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표현했다. “보리밭”의 종달새는 봄이 왔으니 “누구든지 같이 와 놀”자고 하지만 “조롱 속”의 종달새는 갇힌 처지라 밖으로 날 수 없다. 약동하는 봄 기운을 표현한 1절과 비상의 자유가 제약된 2절을 대조적으로 구성하여 약동하는 봄에 조롱에 갇힌 상황의 비극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윤복진은 첫 창작품인 「종달새」를 일제의 검열을 의식하여 식민지의 상황을 조롱 속에 갇힌 상태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힌 후 보금자리를 뺏긴 종달새의 슬픔만 노래하고 항거의 정신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결함이라고 자평했다.³⁰ 〈종달새〉는 북한의 동요선집에 4회 수록된 반면 남한의 동요선집에는 일절 수록되지 않았다. 동요선집에서 배제할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분단 후 남북한 선집에 새로 수록된 동요 3편

다음 3편은 분단 전의 선집에는 수록된 바 없으나 분단 후 남한과 북한의 선집에 새로 수록된 작품으로, 남북이 새로 공유하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표6-분단 이후 남북한 동요선집 수록곡

합	식	남	북	작품명
2		1	1	전화(=우리가 만든 전화통은), 풋대추, 방아 찰는 색시의 노래

30 김청일, 앞의 글, 53~54쪽.

북한 선집에 「우리가 만든 전화통은」으로 표기된 「전화」에서는 장난감 전화기로 대화하며 한반도 전체를 상상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뽕대추」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뽕대추를 따고 나서 “아버지 만나면/뽕대추 생각나서/뽕대추 있는지/가만히 보”는 어린이의 소심한 심리와 행동을 묘사했다. 어린이의 마음을 풋풋하게 드러낸 작품을 남북한 동요선집에 새로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남북한이라는 체제의 차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 <방아 찧는 색시의 노래>는 남한의 『윤복진 동요곡집』 Ⅱ권에 수록했는데, 북한에서는 『계몽기가요선곡집』의 초판본의 동요 편에 수록했다가 재판본에서는 신민요 편으로 옮겼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배치를 바꾼 경우다.

2. 배제원리를 통한 작품 정전의 확대 가능성

1) 분단 전 동요선집에만 수록한 동요 10편, 2) 남한 선집에만 새로 추가한 동요 46편, 3) 북한 선집에만 새로 추가한 동요 14편은 분단 전이나 분단 후 남한이나 북한의 동요선집에만 수록한 작품이다. 이들 작품을 다른 시기와 체제의 동요선집에 수록하지 않은 이유를 살핌으로써 배제원리가 작동한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1) 분단 전 동요선집 수록곡 10편

표7-분단 전 동요선집 수록곡

합	식	남	북	작품명
1	1			귀염, 뽕뽕, 산 넘어온 송아지, 산골 시내, 시계, 어린 잠자리, 어이 어이, 옥수수가 운다, 우리야 마실, 하늘 꺼질 흥

분단 전의 동요선집에만 수록된,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서를 전달한 「어린 잠자리」, 사물의 단편적인 특징을 드러낸 「시계」 등은 분단 전후 동요 선집에 수록된 작품과 유사한 경향을 지닌다. 중복된 소재와 주제에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듯하다. 짧은 가사로 구성되어 이후 다른 동요 가사로 확장된 「산 넘어온 송아지」 역시 가사의 완성도의 측면에서 분단 이후 남북한 동요선집에서 배제된 듯하다. 분단 전 동요선집에 수록된 작품 중 다른 작품과 소재나 주제나 가사가 중복되거나 당대적 특수성을 노출한 작품, 동요로 분류하기 애매한 작품은 분단 후 동요선집에 수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소재 및 주제, 동요의 완성도의 측면에서 선별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남한 동요선집 추가 수록곡 46편

표8-남한 동요선집 수록곡

합	식	남	북	작품명
3		3		무궁화 피고 지고
2		2		노골노골 노고지리, 수박치기 노래, 출넘기 노래, 파아란 세상
1		1		가이 두 마리, 각시님, 걸음마 노래, 귀속임, 꽃씨 심으자, 나무 없다 부엉 양식 없다 부엉, 나비 나비 지고, 누나 생각, 돌을 돌을 골라내자, 딸꼭질, 망향, 바람, 바람은 어대로 가나, 바람이 솔솔 책장 넘긴다, 반짝반짝 작은별, 방울, 별 따러 가세, 봄나비 한쌍, 산 넘어 풍서방이, 새나라를 세우자, 소낙비, 솔잎침, 스껌잉 노래, 시계야 시계야, 씨를 씨를 뿌려라, 수박치기 노래, 아가 동무, 애기 어르는 노래, 애기 자동차, 애기는 우슴둥이, 엄마가 부르는 노래, 옛이야기 데굴데굴, 우리말 우리글, 우리애기 말, 우리애기 바요린, 진달래2, 쪽도리꽃, 쿵당당 달마중 가자, 한방울 물이 물여, 한 병정 두 병정, 할아버지 안경

분단 후 남한 동요선집에 새로 추가된 동요는 식민 현실을 환기하며(「무궁화 피고 지고」, 「쪽도리꽃」) 계몽하거나(「돌을 돌을 골라내자」, 「새나라를 세우자」) 자연과 계절의 변화와 특징을 드러내고(「봄나비 한쌍」, 「쿵당당

달마중 가자 등) 동물의 특징 및 애정을 표현하거나(「나무 없다 부엉 양식 없다 부-엉」 등),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누나 생각」)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고(「각시님」, 「걸음마 노래」), 어린이들의 장난을 묘사하거나(「귀속임」, 「딸꼭질」, 「술잎침」 등) 아기들을 어르며 말놀이하는 내용(「방울」, 「애기 어르는 노래」) 등이다. 소재와 주제가 기존의 곡과 중복되지만 이전에 없던 표현, 기법, 주제 등이 드러난 작품이기에 새로 추가한 듯하다. 남한의 국화를 상징하는 「무궁화 피고 지고」 정도를 제외하면 북한 동요선집에서 배제할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는다. 윤복진의 동요를 확대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바람의 특징을 생동감 있고 재밌게 표현한 「산 너머 풍서방이」, 친구들과 뒷산으로 별 따러 가서 따온 별을 어머니 주머니 끝에 채워 드리고 싶어하는 「별 따러 가세」, 할아버지의 돋보기 안경을 써본 어린이의 어지러움을 표현한 「할아버지 안경」 같은 작품 등은 요즘의 어린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간한 『윤복진 동요곡집』 II에서는 윤복진이 외국곡을 번역한 노래 17곡³¹까지 수록해 놓았다. <종달새>를 비롯한 몇몇 동요곡이 누락되기는 했으나 윤복진이 창작, 번역한 가사까지 포괄하여 윤복진의 동요곡 전체를 한데 모아놓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윤복진의 창작곡과 번역곡의 가사를 비교하여 해외 동요의 영향 관계를 추적할 수 있다.

31 외국 곡을 번역한 17곡은 <고향집>, <나비 나비 지고>, <망향>, <바람은 어대로 가나>, <반짝반짝 작은 별>, <뽕글뽕글 돌아라>, <스컬링 노래>, <시계야 시계야>, <씨를 씨를 뿌려라>, <애기는 우슴동이>, <애기 자동차>, <옛이야기>, <우리 애기 바요린>, <자장가>, <한방울 물이 뭉여>, <한 병정 두 병정>이다.

3) 북한 선집에만 새로 추가된 동요 14편

표9- 북한 동요선집 수록곡

합	식	남	북	작품명
3			3	우리는 조선의 아들
2			2	팔려가는 우리 황소
1			1	가을, 가을바람과 순이, 강남 가는 제비야, 국화, 그리운 제비, 두만강을 건너며, 바다, 밤, 봄비는요, 산새는야 춤췄네, 서리, 쫓겨난 부엌데기

북한 동요선집에만 수록된 동요는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조선”이라는 기표로 노출한 「우리는 조선의 아들」, 국경을 넘는 이들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두만강」이라는 지명으로 표현한 「두만강을 건너며」, 가난과 계급 문제를 드러낸 「쫓겨난 부엌데기」 등이다. “바람 불고 눈 오는/추운 겨울에” “집도 없는 부엌데기”가 “심술 곳은 마님한테/쫓겨”나는 「쫓겨난 부엌데기」는 1927년에 창작됐음에도 분단 후 북한의 동요선집에 유일하게 수록됐다. 북한 동요선집에만 수록된 작품에도 가족애(「바다」, 「밤」), 동물애(「팔려가는 우리 황소」, 「산새는야 춤췄네」 등)를 표현하거나 자연, 계절, 식물의 특징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동요(「가을바람과 순이」, 「국화」, 「봄비는요」, 「서리」 등)가 주를 이룬다. 북한의 동요선집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정체성, 국권 상실의 비애, 계급 문제로 인한 가난과 폭력을 드러낸 작품까지 고루 수록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 이러한 작품은 분단 전에도 분단 후 남한 동요선집에도 수록된 바 없기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핀 바, 남한의 국화인 무궁화를 노출한 작품은 북한의 동요선집에, 북한의 국가명인 조선, 계급 문제를 노출한 작품은 남한의 동요선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러한 작품 외에도 계절, 가족, 자연, 동물을 소재와 주제로 한 작품이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 한 곳에만 등재된 양상을

확인했다. 소재와 주제의 중복성 때문에 수록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

IV. 해석 정전의 지평 확장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모두 수록된 윤복진의 동요 중 원문에 변화가 생긴 경우는 작품 해석 및 향유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 동요선집의 경우 분단 전 창작된 동요 원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향유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향과 국토에 대한 인식

윤복진이 1연으로 창작한 「고향하늘」은 북한의 『조선노래대전집』에는 2~3절과 후렴구가 덧붙은 형태로 수록됐다.

1. 푸른 산 저 넘어로 멀리 보이는 새파란 고향 하늘 그리운 하늘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 제면 저 산 넘어 하늘만 바라봅니다.
2. 새파란 고향하늘 그아래는 나서 자란 고향집이 기다린다고
고향을 떠나온지 그 몇 해런가 저 하늘만 바라보면 가고 싶어요.
3. 곳은 비 내릴 때나 함박눈 올 때 고향하늘 볼 수 없어 애를 태워요.
울고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박꽃 피는 고향집을 그려봅니다.
후렴. 자나깨나 잊지 못한 그리운 고향 그 언제나 다시 찾아 돌아갈 가리.

「고향하늘」

원작인 1절과 추가된 부분 모두 유년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유년의 고향은 “새파란 고향 하늘” 아래 “고향집”이 있고 “긔은 비”와 “함박눈”이 내리고 “박꽃”이 피는 구체적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고향에 대한 이러한 기억은 국토에 대한 상상으로 확대되어 조국에 대한 상징적 기표로 인민들의 마음에 자리잡게 된다. 윤복진의 창작곡에 인민들이 염원이 덧붙어 상호 작용하는 현장성이 나타난 작품으로, 원작자의 작품에 인민의 창작이 더해지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원곡의 창작자는 윤복진이지만 그 향유자는 다수의 독자이자 가창자임을 드러내는 동요로,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인민성, 향토성의 맥락에서 다수의 동요선집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네의원」은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된 상태로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1960)과 『1920년대 아동문학집(1)』(2000)에는 수록됐으나 『조선노래대전집』(2004)에는 원 가사 그대로 수록됐다. 북한 내에서 원곡과 가사를 추가한 노래가 공존하고 있다.

우리 동네 차돌이/의원이라오,
 동네 안에 이름 난/의원이라오.
 앞 담 밑에 흙 파서/가루약 지어,
 풀이파리 따다가/싸서 주어요.
 ×
 동네 애들 병 나면/술잎침 놓고,
 약 한 봉지 싸 주면/당장 나아요.
그래도 맘 좋은/우리 차돌이
약값 한 푼 안 받는/의원이라오.

「동네의원」(1926)

윤복진은 6연으로 구성했으나 북한 동요선집에서는 원작에 7~8연을 추가하고 1~4연과 5~8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동요선집에 수록했다. 원작에는 치료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나 북한에서는 7~8연에 “그래도 맘 좋은 우리 차돌이”가 “약값 한 푼 안 받는/의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아픈 사람을 무상으로 치료해주어야 한다는 가치를 환기하고 있다. 가사만 수록한 동요선집에는 7~8연을 추가하고 악보까지 수록한 동요곡에는 원 가사 그대로 수록했다. 동요 가사는 추가, 삭제 등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동요곡은 가사에 맞춰 악곡을 바꿔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작 그대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전화」는 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되면서 제목이 「우리 만든 전화통은」으로 바뀌고 일부 가사가 교체, 삭제, 추가됐다.

- [1] 우리 애기 전화통은/비둘기표 담배 상자 전화통.
- [2] 우리 애기 전화줄은/이합사 무명실 전화줄.
- [3] [우리 애기 전봇대는/똥그란 문고리 전봇대.]
- [4] [우리 애기 전화는/우편국 아주머닌 없었대요.]
- [5] 짜르릉 짜르릉/짜르릉 짜르릉.
- [6] 아 여보세요/거긴 제주도 한라산이죠/오동지 선달에도 꽃만 핀다지요.
- [7] 짜르릉 짜르릉/짜르릉 짜르릉.
- [8] 아 여보세요/여긴 백두산 꼭대깁니다/한여름에두 흰 눈이 막 쌓였답니다.

「전화」, 원종찬, 『꽃초롱 별초롱』(장비, 1994)

8연으로 구성된 「전화」는 장난감 전화기로 통화하는 내용이다. 6연에서 발신자가 “거긴 제주도 한라산이죠”라고 물으며 8연에서 수신자가 “여긴 백두산 꼭대깁니다”라고 사실을 정정하며 대답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한

차례씩 주고받는 통화 방식이 「우리 만든 전화통은」에서는 4~7, 11~14연의 2차례의 대화로 확장된다.

- [1] 우리 만든 전화통은/담배곽 전화통
- [2] 그래도 먼데까지/곧잘 들리지요*
- [3] 쩌릉쩌릉 쩌르릉/쩌릉쩌릉 쩌르릉...
- [4] 여보세요/거긴요/백두산이지요*
- [5] 여보세요/여긴요 한나산이애요*
- [6] 백두산 높은 봉은/하늘우에 우뚝 솟았다지요*
- [7] 푸르청청 소나무는/눈보라 속에서 자란다지요*
- [8] 우리 만든 전화줄은/무명실 전화줄
- [9] 전신대 없어도/멀리 뻗었지요
- [10] 쩌릉쩌릉 쩌르릉/쩌릉쩌릉 쩌르릉...
- [11] 여보세요 거긴요/한나산이지요
- [12] 여보세요 여긴요/백두산이애요
- [13] 푸른 바다 우리 바다/참말 아름답다지요*
- [14] 오동지 설달에도/꽃만 꽃만 핀다지요

「우리 만든 전화통은」(1930년), 『1920년대 아동문학집(1)』(2000)

「우리 만든 전화통은」은 「전화」의 3~4행이 삭제되고, 2, 4, 5, 6, 7, 13연이 추가된 총 14연으로 구성됐다. 1, 2연과 8, 9연은 장난감 전화통임에도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고 전화 줄이 이어지는 특징을 서술하되 「전화」의 “애기”를 “만든”으로 교체하여 애기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만든 전화통임을 강조하고 “비둘기표”라는 상표와 “이합사”라는 실의 종류를 삭제했으며, 장난감 전화기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문고리 전봇대와 우편국 아주머니를 삭제하고,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라는 소재지

명도 삭제했다. 전화벨 소리를 3, 10연에 제시하고, 벨소리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4~7연과 11~14연으로 나눠 두 차례 반복했다. 4~7연에서 발신인이 거기가 백두산이냐고 물으면 수신인이 여기는 한라산인데, 당신이 찾는 백두산은 높은 봉이 우뚝 솟고 눈보라 속에 소나무가 푸르게 자란다지요라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묻고, 11~14연에서 발신인이 거기가 한라산이냐고 물으면 수신인이 여기는 백두산인데 당신이 찾는 한라산은 푸른 바다가 아름답고 오동지 선달에도 꽃만 핀다지요라고 되묻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어진다. 발신인이 찾는 곳을 수신인이 상상하며 되물어주는 방식으로 대화가 2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고받는 통화를 통해 “백두산 꼭대기”에는 한여름에도 흰 눈이 쌓이고 제주도는 “오동지 선달에도 꽃”이 피는 따뜻한 곳이라는 정보가 제시되며 조선 국토 전체를 상상하며 조망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8연으로 구성된 원작을 14연으로 확장하면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을 표현했다. 송신자가 찾는 백두산과 한라산을 수신자가 상상하는 과정이 대화 내용에 드러나 있다.

2. 계급의식과 대화체의 구어

「새 보는 아가의 노래」는 구어의 생동감을 살린 「후여 딱딱 참새야」라는 제목으로 개작됐다. 바뀐 부분은 밑줄로 표시해 놓았다.

(이야기 부치는 듯이)

[1] 봐라 참새야 너도 눈이 있지 올해만 제발 까먹지 마라
스므 섬 알나랏 거두든 눈에는 쪽택이 나랏 넉 섬도 못 낮단다

[2] 봐라 참새야 너도 귀가 있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쪽텍이 나락을 거두어 두고서 눈에서 하든 말 너도 듯지 안엇나

「새 보는 아가의 노래」, 『아동가요곡선 삼백곡』(1936)

- [1] 후여 딱딱 참새야/너도 그래 눈이 있지,
- [2] 스무 섬 거두던 우리 눈에/쪽정이 열 섬도 못 났단다.
- ×
- [3] 후여 딱딱 참새야/너도 그래 귀가 있지
- [4]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쪽정이 나락 거두어 놓고
- [5] 눈물지며 하시던 말씀/너도 그래 듣지 않았나.
- ×
- [6] 후여 딱딱 참새야/너도 그래 생각이 있겠지
- [7] 강 건너 큰 기와집/부자놈 곳간에 가 파떡어라

「후여 딱딱 참새야」(1930), 『현대조선문학선집(아동문학집)』(1960)

「새 보는 아가의 노래」는 2절로 구성된 동요곡이고, 「후여 딱딱 참새야」는 원작에 5~7연이 추가되어 7연으로 구성된 동요다. 아기는 새에게 “봐라 참새야”라고 말을 붙이며 “스무 섬 알나락 거두든 눈에 쪽텍이 나락 녀 섬도 못 낫단다”는 부모님의 대화를 전하며, 참새에게 올해는 제발 나락을 까먹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봐라”, “마라”, “났단다”, “안엇나”와 같은 구어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흥조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덜기 위해 아기가 새에게 이야기를 붙이며 부탁하고 있다.

「후여 딱딱 참새야」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나 구어의 생동감이 더해지고 흥조으로 인한 고통과 계급적 문제의식이 강화된다. 원작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봐라”가 1, 3, 6연에서 새를 부르는 듯 쫓는 듯한 감탄사인 “후여 딱딱”으로 교체되고, 새와 대면하며 직접 말하는 느낌이 드는 부사어

“그래”가 추가되어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2연에서는 원작의 “알나락 거두 든 눈에는 쪽텍이 나락 녀 섬도”에서 “알나락”과 “나락 녀 섬”이 삭제되어 알맹이의 의미가 거세졌다. 스무 섬에 이미 알나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에 의미의 중복을 피하고 “쪽텍이 나락 녀 섬”의 모순적 표현 대신 “스무 섬 거두던 우리 눈”으로 교체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하고 “쪽정이 열 섬”으로 흥작의 상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4연에서는 잘 보관한다는 의미의 “두고서” 대신 그냥 놔둔다는 의미의 “놓고”로 교체하여 쪽정이를 수확한 허탈감을 강조했다. 5연에서는 대화를 나눈 공간을 특정한 “논에서 하든 말” 대신 “눈물지며 하시던 말씀”의 경어체로 교체하여 흥작이 들어 고통스러워 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그 마음에 이입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냈다.

6, 7연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6연에서는 1, 3연의 구절을 반복하는데 “있지”에 선어말어미 ‘-겠-’을 추가한 “있겠지”로 교체하여 참새가 나의 말을 알아들었으리라고 추측하며 당부하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 나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쪽정이 열 섬도 못” 난 “우리 눈”에서 곡식을 축내지 말고 “강 건너 큰 기와집/부자놈 곳간에 가 파먹으라”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흥년이 들어 더욱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 대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의 곡식을 파먹으라고 당부하는 부분에 계급적 인식이 드러난다. 총 7연으로 구성된 동요의 1, 3, 6연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울감과 통일성을 주며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박태준이 작곡한 전자의 동요곡이 1, 2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면 후자의 동요는 1, 3, 6연 단위로 첫 행을 반복 변주하며 ‘서-본-결’의 방식으로 의미를 점층적으로 전개하며 주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악곡으로 전달한 의미를, 악곡이 제거된 문자만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핀 바, 분단 전후 동요에 변화가 생긴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보편적 정서의 공감대를 위해 인민들이 창작한 가사를 덧붙인 「고향하늘」과 한반도 전체를 상상하며 구어의 생동감을 살려 특정 단어, 행을 교체하며 향토성을 강화한 「우리가 만든 전화통은」. 둘째, 무상 의료라는 북한 체제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가사를 덧붙인 「동네의원」, 가난과 계급의식에 초점을 둔 「새 보는 아가의 노래」. 북한 동요선집에서는 원작품에 연과 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며 인민성, 향토성, 계급성을 강화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40여 년간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윤복진 작품의 출판을 금지하고, 월북 작가의 해금 조치가 시행된 후에도 계급성이 드러나거나 북한의 지명이 노출된 동요는 동요선집에 수록하지 않은 반면 북한에서는 윤복진 동요에 대한 특정한 배제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요선집에 수록된 윤복진 작품의 스펙트럼은 남한보다 북한이 더 넓었으나, 올해 남한에서 윤복진의 동요곡 105곡을 수록한 『윤복진 동요곡집』 I·II권이 출간되면서 특정 노래만을 반복 수록하는 편향성에서 벗어나 윤복진 동요곡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냉전 70년의 비극으로 인한 특정 작가의 작품 향유의 제약이 비로소 풀린 셈이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동요, 신민요, 계몽가요 등의 범주로 윤복진의 창작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1920년대부터 방정환, 윤석중, 윤극영, 윤복진 등이 창작한 동요는 현재도 향유되고 있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 활동한 윤석중, 윤극영 등의 전문

동요 작가는 전집이나 선집의 형태로 작품이 보존된 반면, 월북을 한 윤복진은 1920~193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온전히 보존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동요의 스펙트럼이 폭넓었던 양상을 보이는 윤복진 동요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1920년대부터 2022년까지 윤복진의 동요를 수록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그 수록 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식민지 시기 윤복진이 창작했다고 밝힌 1천여 편의 동요 중 18% 정도의 작품이 동요선집에 수록됐으며,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모두 수록된 작품은 일부이고, 일부는 남한이나 북한 동요 선집 한 곳에만 수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논문을 투고한 후 이내선이 편찬한 『윤복진 동요곡집』 I·II권을 접하게 되면서 남북한 동요선집에서 공유하는 작품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남북이 공유할 작품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남·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40여 년간 작가의 이름조차 인쇄하기 어려웠던 시절을 거쳐, 남·월북 작가의 작품 해금 조치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윤복진의 동요로 만든 동요곡의 전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작가 정전, 작품 목록의 교체 및 확대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윤복진이 창작한 동요 목록을 구성하고 원문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윤복진 동요는 인간과 자연, 사물을 소재로 한 여타의 동요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남한 선집에는 자연과 사물, 동식물, 가족을 소재로 한 내용의 동시가 주로 수록되고 북한 선집에는 민족과 계급, 구어를 살린 작품이 수록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삶의 세목이나 가난의 문제에 구체적 관심을 보인 작품은 남한 선집에는 수록되지 않고 북한 선집에만 수록되는 현상도 확인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식민지 시기 창작된 원작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나 향유자의 소망을 투영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원곡의 훼손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체제의 가치를 반영한 향유자의 능동적인 개입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 월북작가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윤복진의 동요곡을 윤석중의 개사곡으로 바꿔 부른 현상을 염두에 두면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동요동시선집 및 동요곡집 목록(표1 참조).

2. 단행본

강영미, 『정전 검열 기억』. 서울: 지만지, 2019.

고규진, 『문학 정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류덕제,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 파주: 청동거울, 2017.

손태룡, 『박태준 악곡 연구』.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13.

원종찬, 『북한의 아동문학』. 파주: 청동거울, 2012.

3. 논문

김청일, 「〈동요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조선문학』, 평양 : 조선예술출판사, 2002.7, 50~63쪽.

_____, 「〈동요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조선문학』, 평양 : 조선예술출판사, 2002.8, 27~34쪽.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 연구: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7, 2009, 155~190쪽.

4. 기사

「朝鮮童謠研究協會 創立」. 《동아일보》, 1927년 9월 3일자.

「문교부, 국가이념에 배치되는 중등교과서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 《조선일보》, 1949년 10월 1일자.

「월북작가 작품 출판판매금지 문교부서 지시」. 《동아일보》, 1957년 3월 3일자.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분단 전후 남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윤복진 동요의 수록 양상과 그 특징을 살핌으로써 윤복진의 동요가 남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정전화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윤복진은 개인 동요선집 『꽃초롱 별초롱』(1949)을 발간한 후 월북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동요 작가로 자리잡은 반면 남한에서는 그 존재가 망각되어 왔다. 그로 인해 북한의 동요선집에는 윤복진의 동요가 다채롭게 수록된 반면 남한의 동요선집에는 분단 전 창작한 동요 일부만 수록되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 남북의 정치 체제의 차이가 분단 전 창작된 윤복진 동요의 보존 및 향유 방식에도 차이를 초래했다.

북한 동요선집에서는 분단 전 창작한 윤복진의 동요를 비교적 폭넓게 수록 하되 인민성, 향토성, 계급성을 보이는 작품은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석 방식을 강조한 반면, 남한에서는 자연과 가족, 동물과 사물을 인식하는 어린이의 순수성에 초점을 둔 작품을 반복 수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아직까지 윤복진이 창작한 작품의 전체 목록이 제공된 바 없으므로, 남북한 동요선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윤복진의 동요 목록을 작성하고 작품 원본을 확보하여 식민지 시기 창작한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월북 이후 창작한 작품을 살필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2. 3. 18.

심사일 2022. 7. 26.

게재 확정일 2022. 8. 12.

주제어(keyword) 윤복진(Yoon Bokjin), 동요(Children's Song), 정전(Canon), 남북한 동요선집(North and South Korean Children's Song Anthology)

Abstract

A Study on the Canonization Process of Yun Bokjin's Children's Song

Kang Youngmi

In this study, the aspect and characteristics of Yun Bokjin's children's song included in the anthologies of North and South Korean children's song before and after divis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this, attention was paid to the process by which Yun Bokjin's children's song were canonized differently in the North and South Korean children's song. Yun Bokjin published his personal collection of children's songs, 『꽃초롱 별초롱』(1949), then went to North Korea and continued to create children's songs, establishing himself as a representative children's writer in North Korea. But in South Korea, his existence was forgotten because of a ban on the sale of works by those who had gone to North Korea. As a result, a variety of children's songs by Yun Bokjin were recorded in the North Korean children's anthologies but the South Korean children's anthologies only contain some of the children's songs created before the division.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also caused differences in the way of preserving and enjoying Yun Bokjin's children's song created before division.

The North Korean children's song anthology contains a relatively wide range of children's songs written by Yun Bokjin and added some content to works that show people's character, local character, and class character. In South Korea, there was a tendency to repeatedly include works that focus on children's innocence in recognizing nature and family, animals and objects. The diverse spectrum of Yun Bokjin's children's song is better revealed in the anthologies of North Korean children's songs. Since the complete list of works created by Bok-jin Yoon has not been provid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ist of children's songs by Yoon Bok-jin, focusing on the works contained in the North and South Korean nursery rhymes, and secure the original works to secure the Yun Bok-jin nursery rhymes created before division.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works created after defecting to North Korea in relation to the works crea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